



인도의 NGO, 폐쇄 위기에 처하다

DATE

2018.11.15

TO

총리

Narendra Modi

Prime Minister's Office
South Block, Raisina Hill, New
Delhi-110011

Fax: 01123017475

Email: connect@mygov.nic.in

Twitter: @narendramodi

Salutation: Dear Prime Minister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자 포괄포인트

Srinivasa Kammath

Srinivasa Kammath
Block-C,GPO Complex, INA,New Delhi,
India

Email: dr1.nhrc@nic.in

Salutation: Dear Sir

유엔인권고등판무관

Michelle Bachelet Jeria

Michelle Bachelet Jeria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Palais des Nations

CH-1211 Geneva 10, Switzerland

Email: mbachelet@ohchr.org

InfoDesk@ohchr.org

인도 정부가 국제엠네스티 인도지부와 그린피스 인도사무소를 표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불시 단속'을 벌인 가운데, 두 단체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이들의 활동이 저지당하고 있다. 이는 인도 정부가 시민 사회 탄압을 목적으로 벌인 가장 최근의 단속이다.

2018년 10월 25일, 인도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기관 집행위원단이 국제엠네스티 인도지부에 진입해 10시간 동안의 불시단속을 벌였다. 직원들 중 일부는 떠나지 말고 노트북을 끄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10월 초에 그린피스 인도사무소를 겨냥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다.

국제엠네스티 인도지부와 그린피스 인도사무소 모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시단속에 이어 계좌까지 동결되었다. 국제엠네스티 인도지부와 그린피스 인도사무소는 현재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에서 이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인도 당국은 이 단체들이 외국 자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무부는 또한 국제엠네스티 인도지부가 받은 자금을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억압적인 해외 자금법 중 해외출자(규제)법(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 Act (FCRA))은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정부 당국에 의해 종종 사용된다. 인도 당국은 비정부기구의 해외 출자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FCRA를 근거로 "공익"과 "국민 이익"에 반대되는 금융 "부정"과 활동들을 문제 삼았다. 정부의 FCRA 악용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표적이 된 단체에는 변호사 공동회(Lawyers Collective), 피플스 워치(People's Watch), 사브랑 트러스트(Sabrang Trust), 나브사잔 트러스트(Navsarjan Trust) 등이 있다.

국제엠네스티 인도지부에 대한 불시단속은 인도가 "인권 증진과 보호에 있어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것이다. 국제엠네스티는 인도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권리를 침해한 인도정부를 규탄한다.

국제엠네스티 인도지부와 그린피스 인도사무소는 인도정부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공격의 가장 최근 표적에 불과하다.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인권옹호자들이 잔인한 탄압을 받아온 가운데, 10명의 저명한 활동가들이 정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종종 사용되는 엄격한 테러방지법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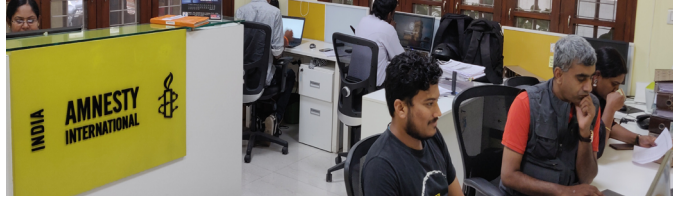
영어 및 모국어로 다음과 같이 미얀마 정부에 촉구해주세요.

- 인권 및 환경 단체에 대한 위협과 탄압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제엠네스티 인도지부와 그린피스 인도사무소와 같은 비정부기구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계좌 제한 조치 없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외출자(규제)법(FCRA)을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폐지하거나 개정하십시오.
- 억압적인 법률로 인해 체포된 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십시오

2018년 12월 27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UA: 194/18 INDEX: ASA 20/9388/2018



인도의 NGO, 폐쇄 위기에 처하다

DATE

2018.11.15

TO

총리

Narendra Modi

Prime Minister's Office
South Block, Raisina Hill, New
Delhi-110011
Fax: 01123017475
Email: connect@mygov.nic.in
Twitter: @narendramodi
Salutation: Dear Prime Minister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자 포괄포인트

Srinivasa Kammath

Srinivasa Kammath
Block-C,GPO Complex, INA,New Delhi,
India
Email: dr1.nhrc@nic.in
Salutation: Dear Sir

유엔인권고등판무관

Michelle Bachelet Jeria

Michelle Bachelet Jeria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Palais des Nations
CH-1211 Geneva 10, Switzerland
Email: mbachelet@ohchr.org
InfoDesk@ohchr.org

2018년 12월 27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배경 정보

인도에서 억압적인 법들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연이은 정부들이 정부의 견해와 행동에 비판적인 집단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출자(규제)법(FCRA)을 사용해 왔다. 이 법안은 인권 단체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FCRA에 사용된 "공익"과 "국민 이익"과 같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용어는 이 법을 남용할 수 있게 했다. FCRA는 국제 기준에 미달하며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2018년 6월 6일 인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인권옹호자 탄압에서 마하라슈트라 경찰은 활동가 서렌드라 갠들링(Surendra Gadling), 로나 윌슨(Rona Wilson), 수디어 다웨일(Sudhir Dhawale), 쇼마 센(Shoma Sen)을 체포했다. 8월 28일에는 마하슈트라 경찰이 활동가 수다 바아라다지(Sudha Bharadwaj), 고탐 나블라카(Gautam Navlakha), 버논 곤살베스(Vernon Gonsalves), 애런 페레이라(Arun Ferreira) 그리고 바라바라 라오(Varavara Rao)를 체포했고 몇몇 다른 사람들의 집을 급습했다. 이들 인권옹호자들은 비합법적활동(방지)법(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UAPA))에 따라 체포되었다. 인도 당국은 이들이 2017년 12월 31일 대규모 집회에서 달리트(불가촉천민)들을 선동했으며, 이로 인해 다음 날 초래된 폭력 충돌로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 1일 마하슈트라에 있는 비마 고레가온에 수백 명의 달리트가 모인 집회는 200년 전 폐쇄와 왕국을 물리치기 위해 달리트 병사들이 영국군을 도와 싸웠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합법적활동(방지)법은 종종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구금하는데 악용되어 왔다. 이 법의 일부 항목은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인권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위의 10명의 운동가 중 8명이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이다. 10월 25일 하이데라바드 법원은 바라바라 라오의 가택 연금 기간을 연장했고, 10월 1일 텔리 고등 법원은 고탐 나블라카의 가택 연금 해제를 명령했다.



Dear _____,

I am writing to express my grave concern regarding recent clampdowns targeting civil society in India. Amnesty India and Greenpeace India have been targeted by the Government of India in a series of 'raids', which appear to be politically motivated. The bank accounts of both organisations have been frozen, effectively stopping their work.

Therefore, I urge you to stop intimidation and harassment of organisations working o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ssues, like Amnesty India and Greenpeace India. They should be able to continue their operations unhindered by politically motivated restrictions on their bank accounts. I also call on you to repeal or amend The 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 Act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ensure fair trials, including release on bail pending trials to the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who have been arrested using repressive laws.

Yours sincerely